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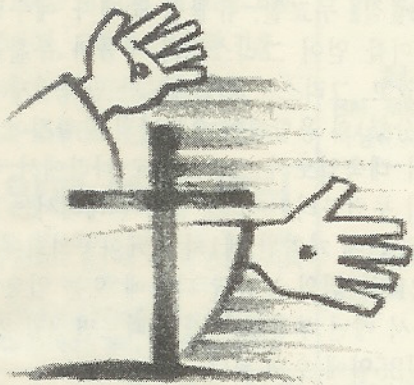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27권 19호 (다해) 2007.4.8

[묵상]



약속

피어났네. 절망의 끝에서 약속의 꽃

비워서 더욱 충만하게 물드는

빛깔과 향기로 죽음을 활짝 열어

평화, 모든 삶에 사랑의 힘을.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 5월1일 제4단계 개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십자가의 길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주 일 낮 미사	(연)김성환, 도날드 브라운, 김영수 테레사, 배일호 헨리 정윤 요셉, 김기하 요셉과 이희자, 김창배 파스칼, 김형진 김인영 베드로, 전길래 모니카, 이현호 요한, 데니스웨버 이영자 마리아
	(생)손석조 마리아, 이상현 베드로, 윤금순 아녜스 김나영 마리아, 조재현 조나단, 이상규 다니엘, 이종민 요셉 박진수 스테파노, 김종돈 스테파노, 최보미 클라라 김풍길 바오로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0,34-37-43

화답송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전례성가 70 예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주님의 오른 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 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하고자.○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우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제 2독서 콜로새서 3,1-4

부속가 파스카 회생 어린양을 모두 다 찬미하세.
어린양이 양들을, 무죄하신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셨도다. 생명 죽음 싸움에서
돌아가신 생명 주님, 살아 계시며 다스리신다.
말하여라, 마리아.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자 천사들, 수의를 난 보았네.
나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갈릴래아로 먼저 가셨네.
주님 정말 부활하심 저희 믿사오니,
자비를 베푸소서, 승리자 임금님.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요한 20,1-9

영성체송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도다.
알렐루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예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입당	162
봉헌	164, 163
성체	169, 166 (특송 G. F. Handel "Hallelujah")
파견	170

◆ 부활절과 부활절 계란의 유래 ◆

▶ 부활절 (復活節, Easter)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기로서, 교회 전례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래된 축일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스터(Easter), 독일에서는 오스테른(Ostern)이라 하는데, 이것은 게르만 민족의 빛과 봄의 여신 '에오스터' (Eoster)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들의 파월절, 무교절, 유월절 축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얻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가 되었고, 그리스도교가 게르만 민족에게 전해진 후로 춘분제(春分祭)와 융합하여 오늘날의 부활절이 되었다.

부활절이 대축일로서 그리스도교 나라에서 지켜지게 된 것은 2세기 무렵부터이며, 그 날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325년에 개최된 제1차 니케아공의회에서 부활절은 춘분(3월21일) 뒤의 보름달 다음에 오는 일요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매년 부활절은 제일 빠르면 3월 22일에, 제일 늦으면 4월 25일에 오게 된다.

▶ 부활절 계란 풍습

1) 부활절에 아름답게 채색한 계란을 선물하는 풍습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초대교회의 가톨릭신자들은 사순절 동안 고기와 생선은 물론, 계란까지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활절 미사가 끝난 직후 계란이나 오믈렛을 즐겨 먹었다. 옛날에는 계란 값이 비싸 어렵게 마련하여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2) 원래 부활절 축제의 상징은 계란이 아니라 토끼였다. 게르만 민족의 빛과 봄의 여신인 '에오스터'의 상징이 토끼였기 때문이다. 이 부활절 토끼 풍습은 독일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함께 들여왔다. 18세기 당시 미국에는 청교도를 위시해서 엄격한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활절 토끼'는 전혀 발붙일 수 없었으나, 남북전쟁(1861-1865) 이후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3)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란을 사용하게 된 것은 "모든 생명은 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로마의 속담에서 왔다는 생각도 있다.

4)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산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대신 저준 키레네 사람 시몬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암탉들이 낳은 계란이 모두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계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였고, 아름답게 채색하여 선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백삼위 전례연구 위원회

정점이며 결론

최근에 제임스 캐머런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예수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주장을 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난 3월26일에 유럽의 큰 방송사들이 '예수의 매장 동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방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탈피요트 지역에서 약 2천 년 전의 동굴무덤을 발견했고, 그 동굴 속에는 2천 년 전의 관이 열 개나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 등의 이름이 새겨진 관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도 부활하지도 않았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혼하여 유다라는 아들을 낳고 살다 죽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인 아모스 클로너 씨는 "비문에 적힌 이름들은 기원 전후 시기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가족들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만일 캐머런 감독의 주장이 옳다면 그리스도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문제인 죽음 저 건너편에 대한 설명을 주지 못하신 셈입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업도 실패작이 됩니다. 당신 자신도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구세주를 찾아,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 방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스승의 돌무

덤이 로마 병정들이 불침번을 서면서 지켰는데도, 사흘째 되던 날 비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스승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체험했습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엄연한 사실이었고, 이 사실을 증거 하느라고 사도들은 막내둥이 요한 외에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의 조작사건이라고요? 자신들이 조작한 사실에 목숨을 걸고 마침내 순교까지 하다니,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조작사건을 진실로 알고 순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나 한 달 전이나 일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조작자들이 스스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래서 사도들의 순교는 예수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난 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 드라마의 서곡을 울렸고, 성주간에는 본론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부활 대축일에는 드디어 결론을 맺습니다. 이 역전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에서 환희의 알렐루야를 외치며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 백남용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부활성야 오후9시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진수 에우세비오	없음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1. 김교복 레오 3. 박희자 마리아		전배형 베드로
제2독서자	5. 박진숙 엘리사벳 7. 최영신 프란치스코 서간: 권순길 세실리아		김정심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사목회		토 동 1,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봉효운 솔리나	변혜경 율리안나	박진숙 엘리사벳
제물봉헌자			토 북 1, 2반

† 알렐루야 ♪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본당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애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빌며,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전례부, 글로리아 성가대, 복사단,
전례봉사단, 제대회, & 시설관리부 소속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세례를 축하합니다.

유아세례 (부활성야 4월 7일)

김민재 미카엘 김성재 라파엘 신채환 프란치스코
조재현 조나단 (3월 31일)

성인세례 (부활성야 4월 7일)

강혜중 크리스티나 (토렌스 남 4반)
김랑아 루시아 (토렌스 서 3반)
김선헌 요세피나 (청년회)
김영경 클라라 (토렌스 서 1반)
김철희 베네딕도 & 효순 스콜라스티카 (토렌스 동 3반)
김한진 루카 (토렌스 남 4반)
박선형 엘리사벳 (토렌스 남 3반)
이영석 크리스토폴 (P.V. 3반)
이리사 엘리사벳 & 김정숙 데레사 (토렌스 동 1반)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오늘 오전 9시 30분, 11시

◆ 부활 대축일 낮미사부터 미사헌금 봉투를 사용합니다.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계시판에 기록합니다.

☞ 지난 주간 합계: 1,810단 ☞ 총 합계: 111,772단

◆ 4월 병자 영성체

- 4월12일(목), 오전9시30분
- 저녁 7시30분 미사후 성시간 없습니다.

◆ 주일학교 부활절 행사: 은총시장

- 오늘 주일, 오전9시30분 미사 후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4월29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자격: 7학년 이상 모든 학생
- 참가비: \$1
- 신청마감: 3월18일(주일)
- 신청: 한국학교 사무실

◆ 요셉 안나회 부활맞이 온천 관광

- 4월30일(월), 출발 오전 8시, 성당
- 회비: 회원 \$15, 비회원 \$25
- 문의: 회장 이영희 카타리나 (310)944-2737

축하합니다.

◆ 성경 통독자 (3/1/06~2/13/07) 명단

- 토렌스 동: 김양금 안나 김옥찬 수산나 민원희 안나
변혜경 올리안나 오신재 메히틸다 유철희 바오로
유현자 안나 육근주 올리안나 이연행 세실리아
정기은 비오 최성자 카타리나 한길선례 스콜라스티카
- 토렌스 서: 김교복 레오 김기정 루치아 김대우 비오
김용상 페트릭 김충섭 마틴 리크리스 아가톤
우영희 엘리사벳 이명렬 라파엘 이명순 크리스티나
장선헌 레지나
- 토렌스 남: 박광자 소화데레사 배난군 세레나
엄영숙 마리아 임현기 마르코 장영우 엘리사벳
장주관 마리아
-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권병연 리디아
안병주 데레사 이복임 엘리사벳 천광락 야고보
- 하버/칼슨: 이정자 아그네스 이행자 리드비나 최숙 클라라
- P.V.: 강숙경 도미니카 이도순 요안나 이병권 파비아노
- ◆ 혼배성사 4월 22일(주일) 오후 2시
이윤호 베네딕도 & 강혜중 크리스티나(4월 7일 영세자)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우금	성전헌금
권진열 김마틴 김병록 김선제 김선헌 김용현 김원모 김재연 김종환 김철민 노혜숙 문영일 문은주 박승순 박인식 박종열 박준구 반비오 서흥삼 소성덕 손춘희 송기순 신경숙 신순철 오세정 오호순 유정복 유희연 윤혜미 윤희동 이근모 이연행 이호미 임연조 장숙환 장영진 정동호 정인식 조준제 최수복 최애경 최희태 한금순 한소옥 한혜숙 황학수 박제이콧 신영웨버 영희가보라 한길선례	합계: \$5,560	합계: \$3,985
미사헌금	\$2,945.05	2차 헌금
		\$1,231
감사헌금	김상근	

공지사항

- ◆ 제10회 김수환추기경배 (가톨릭 방송사 기금모금) 골프대회
 - 4월24일(화), 오후 12시30분
 - Oak Quarry Golf Club
 - 연락: 최기남 야고보 569-3940
- ◆ 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부활성야: 각테일, 샌드위치 ● 부활 낮: 떡
 - ※성모회와 소공동체부에서 봉사합니다.
 - 4월15일: 토렌스 남 2반 (우거지 갈비탕 \$3)

남가주 소식

- ◆ 학원 결의안 121(H.Res.121) 지지 서명 계속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 한국어 혼인 강좌 신청
 - 4월14일(토) 오전 8시, 성 제임스 성당
- ◆ 성녀 예수의 데레사 영성 피정
 - 4월14일(토) & 15(주일), 오후1시~8시30분
 - 재미 한국 가르멜 수도원, 521 N. Euclid St., La Habra
 - 주제: '완덕의 길' 해설 총 12강좌 예수의 성녀 데레사
 - 강사: 서봉교 에로니모 신부, 가르멜회 ● 수강비: \$50
 - 연락처: (323)683-4491, 전화 예약 신청만 받음
- ◆ 하느님 자비의 축일 행사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2000년 4월 자비의 축일을 선포하시고 이 축일을 기념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윤택하셨습니다.

 - 4월15일(주일) 오후 2시30분~4시30분
 - 성바실 성당 회관 3535 W 6th St., L.A., CA 90020
 - 내용: 하느님 자비심 기도, 성체 강복, 미사, 유해친구
 - 문의: (213)389-3142

사람을 구합니다.

❖ International Inflight Catering ❖

▶ Accountant 모집

- 자격: 이중언어 (영/한), Accounting 전공/유경험자 환영
- 혜택: 건강 (100% 회사지원), 치과, 생명 보험 401K
- Resume: E-mail whsung@hacorinflight.com or Fax (310)645-9110 Attn. Woo Hyun Sung

▶ Japanese food cook/helper 모집

- 자격: 이중언어 (영/한), 유경험자 환영
- 혜택: Health Insurance, etc., Paid vacation, 점심 제공

이번 주 단체 모임

각단체 모임 오후 1시, 각 방

다음 주 단체 모임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유선식 필립보 326-2184 4/14(토) 오후 7시
	3	정정숙 레아	정정숙 레아 791-5696 4/19(목) 오후 7시30분
	4	권본경 올리아	형제반 1째 수 오후 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 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오늘 주일 오후 3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마리아 798-6540	오호순 모니카 782-9139 4/20(금)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4/20(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김행선 올리아나 791-6365 4/10(화) 오전 10시30분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486-1982 4/13(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김운진 카타리나 514-2143 4/15(주일) 오후 6시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이행자 리드비나 518-1424 4/14(토), 유아실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김대건 안드레아 544-4807 4/13(금) 오후 7시30분
	3	전애경 올리아나 541-5370	김택수 프란치스코 544-9532 4/13(금) 오후 7시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손준희 아네스 377-1618 4/10(화) 오전 10시30분

나의 영세 10주년

나는 1997년 부활절이었던 3월 31일에 파리의 한인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 일이다. 그 전 해 9월부터 예비자 교리를 받았고, 2월 초에는 그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각국 출신의 모든 예비자들이 몽마르트르의 성심 성당에 모여 당시 파리대교구 교구장이셨던 뤼스피제 추기경님과 한 사람씩 호명을 받고 악수를 하며 미리 인사를 했다. 나는 당시에 파리 제7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특히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나의 영세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사실 나를 처음으로 한인성당에 데리고 간 사람도 바로 나의 제자인 로사였다. 혼자 외국에 나와 파리에서 외로웠던 나는 성당에 예비자로 나가면서부터 마음 붙일 곳을 찾았다. 나도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나를 위해 주고 보호해 주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파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으며 혼자 어렵게 박해를 이겨내고 있었는데, 그곳의 천주교회에서는 오히려 신부님이 면담을 통해 나에게 충고를 많이 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내가 맡은 강의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새로 만나는 친구들은 모두가 천주교 신자였고, 우리 가족도 모두 입교를 벌써 한 후여서, 내가 성당에 가게 된 분위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예비자 교리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찰고 때에는 제일 먼저 답안지를 써서 내어 신부님의 칭찬을 들었다. 영세가 끝나기 전서부터 수녀님은 나에게 주일학교 일을 맡기시려 했지만, 내가 아는 음악대 학생이 재빨리 나를 성가대로 데리고 가서, 나는 세례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가대원으로 일요일 미사 때마다 노래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미사에 꼭 나오게 되었다.

내가 미국으로 온 후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봉사 활동을 하며 사람 구실을 한 것은 바로 성당에서였다. 직업 생활에서 보람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생활에서 성당과 신앙생활은 나의 지주가 되었다. 성당 친구들이 나에게 필요한 온갖 도움을 다 주었다. 나는 여러 해 레지오 활동을 했고, 카르멜 재속회원으로 도 몇 해를 다녔다. 내가 고민이 있거나 사회에서 피해를 입거나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신부님들께 상의를 드리면, 진심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가톨릭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성당 봉사 외에도, 몇 년 전부터 종교 서적을 번역하고 글을 쓰는 일이다. 내가 발표한 글과 책들을 모두 좋아하시니,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글을 더 많이 써야겠다. 이것이 멀리서도 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추기경님들과 주교님들 그리고 교황님께도 기쁜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0년 세월이 나에게서는 어렵게 흘러갔지만, 가톨릭 신자가 되어 매주 일요일에 성당에 나가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 같다. 지금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은 천주교 신자이고, 그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아나갈 수 없다. 나를 위해 멀리서 가까이서 애써 주시는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을 위해, 나는 오늘도 지치지 않고 내가 당하는 부조리를 고발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책들을 내도록 애써야겠다. 앞으로 오는 10년 동안에는 한반도에도 평화가 오고, 그동안에 나도 더 보람찬 결실을 많이 내어, 정말 진실 되고 헌신적인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겠다.

◆ 토렌스 동 1반 이연행 세실리아